

북한이탈 후 한국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의 임상적응 경험

김희숙¹, 이도영^{2*}, 서임선³

¹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³가톨릭관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xperience of clinical adaptation of a nurse who obtained a license for a Korean nurse after leaving North Korea

Kim HeeSook¹, Lee Do-Young^{2*}, Seo Im-sun³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Health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³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 후 한국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사로서 살아가는 경험을 질적 자료를 통하여 그들의 적응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로 자신의 경험을 풍부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북한이탈 간호사 7명을 표집하였으며, Colaizzi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여 5개의 주제 묶음과 14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은 한국의 간호사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한민족으로 인식되길 바라였고, 새로운 꿈을 위한 열정과 도전을 하면서 한국의 구성원으로 흡수되어 진정한 한국간호사로 되어가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 후 한국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사로서 살아가는 경험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대상자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한국간호사로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현실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북한 이탈, 한국간호사, 임상적응, 경험, 질적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and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who acquired Korean nurse license and living as a nurse in depth through qualitative data. The study sampled 7 North Korean defector nurses who can express their experiences well, and applied Colaizzi'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draw out 5 theme clusters and 14 sub categories. As the result, subjects had proud of becoming nurse in Korea, acknowledged and accepted differences from Korean, wanted to be recognized as the Korean people, and they expected to becoming true Korean nurse by being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with their passion and challenge toward a new dream. This study has helped to apprehend essence of experi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a nurse after acquiring Korean nurse license, and it is expected that it could provided basic data to realistically approach to seeking measures for the subjects to successfully adjust as Korean nurses.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Nurses, Clinical Adaptation, Experience, Qualitative Research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2001년도 이후 매년 1,000명이 넘는 추세로 2009년에는 2,914명의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였고,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31,827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한 상황이다[1]. 연령대별 입국현황에 의하면 10대는 11%, 20대는 29%, 30대 29%로 청소년과 청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2],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자립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3].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고 있는데[4], 특히 대학교육에서는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뿐 아니라[5],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 사립대의 경우는 등록금 반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남은 반액은 학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액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실정이다[4].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을 위해 2008년 이후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에는 253개 대학의 1,892명에게 42억 원의 대학교육지원금이 지급되었다[4].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 대학생의 대학 적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이탈 대학생은 한국에서의 정규교육을 단계적으로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의 교육과정은 한국과 상이하여 학업이수에 어려움이 있다[6]. 북한이탈 대학생은 대학생활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학업에 대한 부담, 대인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 경제문제, 어학과 학업이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로 자퇴를 고려하고 있다[7]. 북한이탈주민은 정규교육을 마친 후 현실적으로 취업문제에 당면하며[4],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직업의 수입과 안정성이 62.4%로 높게 조사되었다[8]. 초창기 북한이탈 대학생의 진학분야는 중국어 및 정치(북한학)였지만,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하다 보니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희망직업으로 간호사가 6위를 차지할 만큼 선호하는 직업이 되어[5] 최근에는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북한이탈 대학생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3].

간호학과 교과과정은 이론과 임상실습이 병행되며[3],

특히, 간호학과에서 필수로 배워야 하는 의학용어와 취업을 위한 영어 공부에 북한이탈 간호학생에게는 남한에서 처음 접하는 기초과목으로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교과목이다[9]. 게다가 일상생활에서도 남한 사람들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등 남한생활 적응 및 대학생활 적응에도 큰 장벽이 되고 있다[10]. 또한 북한이탈 대학생은 북한의 교육과정상 체계적으로 기초학습 교육을 받지 못한 뿐 아니라 북한 이탈 과정에서 학력결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수준의 기초학습능력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어와 의료용어 기반의 간호학 교과목을 이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1]. 북한 이탈주민의 말투나 억양으로 인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남한사람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일정 기간 자신의 말투를 교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10].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에는 대인관계와 비판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되며[3], 임상현장에서 대처능력 뿐만 아니라 대상자와 동료 간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한 간호역량으로 대두되고 있어 북한이탈 대학생에게 간호학은 교육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9]. 이와 같은 문제로 북한이탈 대학생의 경험[6],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경험[3,9]의 연구가 있지만, 북한이탈 후 한국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간호사로 적응하여 살아가는 간호사의 경험의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 대학생이 졸업 후 임상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역량들이 충분히 배양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북한이탈 간호사들의 임상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하여 살아가도록 돕는 것은 통일에 대한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남과 북의 이질감을 해소하여 민족구성원으로서 통합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문제이다[5,6]. 북한이탈 후 한국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의 임상적응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적응하면서 겪는 이질감과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한국간호사로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 후 한국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사로서 살아가는 경험을 질적 자료를 통하여 그들의 적응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질문으로는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한국간호사가 되어 임상에 적응한다는 것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이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북한 이탈 후 한국에 정착하여 한국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하여 한국간호사(이하: 북한이탈 간호사)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하는 삶의 현상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Colaizzi[12]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1)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2) 한국으로 이주한 지 10년 미만인 자, 3) 대한민국 소재의 간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간호사 면허를 획득한 자, 4) 임상간호사로 1년 이상 간호 업무를 수행한 자, 5)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 이다.

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충청 지역의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7명으로 자신의 경험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선정기준에 맞는 자이었다.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본 연구자들이 ‘통일간호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의도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과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잘 이해하는 대상자가 자발적인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고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였다.

2.3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생명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 (과제승인번호 : P01-201611-21-011). 대상자와 심층면담 전에 참여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소속과 연구 목적

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하도록 하였다. 면담 과정 중 녹취를 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이에 대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참여와 관련되어 어떠한 불이익이나 강제성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하며 익명성과 비밀 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가 종료된 후 녹음된 내용과 자료는 모두 폐기될 것을 설명하였다.

2.4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였다. 총 7명의 참여자로부터 개인 심층면담과 메모를 통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평균 면담시간은 약 2시간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적합한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하여 대상자의 경험을 충분히 포화되도록 하였으며 면담 장소는 대상자의 안정을 위하여 조용한 방에서 이루어졌다. 면담한 녹음 내용은 대상자가 표현한 언어로 필사하여 기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12]가 제시한 접근방법을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Colaizzi[12]의 연구방법의 주제(theme)는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를 그대로 기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공통적인 진술을 묶어 단계적으로 추상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대상자(member check)를 통하여 연구자가 분석한 맥락적 의미가 왜곡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연구자가 북한이탈간호사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여과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Colaizzi[12]가 제시한 접근방법에 따라 6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에서는 대상자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하였으며, 면담 시 연구자의 이해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치면서 면담을 하였다. 면담 시 녹음된 내용은 연구자가 여러 차례 반복 청취하면서 그대로 진술을 기록하였다. 2단계에서는 기록된 진술들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강조된 현상과 같은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일관적 형태 또는 추상적인 진술로 언급하였다. 4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에서 주제, 주제모음, 범주를 구성하여 추상화 과정에서 어색함과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고, 본 연

구원들과 현상학적 연구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자 2명의 의견을 모아 현상학적 분석을 제시도하였다. 5단계는 참여자들의 경험이 갖는 본질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제묶음을 현상학적 경험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완전하고 명확한 진술로 최종적인 기술을 하였다. 6단계에서는 참여자에게 본인의 경험과 일치하는지의 본질적 구조의 타당화 과정을 거치고, 확인된 경험 현상의 공통요인들을 최종적으로 통합하였다.

2.5 연구의 엄밀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3]의 네 가지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근거한 평가를 통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사실적 가치의 확보는 경험에 대한 기술이 경험한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신빙성과 같은 의미로 양적 연구의 내적타당도와 관계된다. 따라서 대상자들에게 분석 결과를 알려주고,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적용성의 확보는 양적 연구에서는 외적 타당도와 관계되며 대상자들을 통하여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추출되지 않도록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관성은 양적 연구에서 신뢰도와 관계되며 이는 동일한 연구 참여자에게 유사한 맥락의 질문을 반복할 때, 면담내용이 일관성 있게 진술되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 교수 1인에게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해나 편견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자 간의 주관성 배제를 최소화시키고 중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선입관과 편견으로부터 해방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2.6 연구자의 훈련과 준비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위 과정 중 현상학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교수로부터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강하였으며, 매년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질적 연구학회를 참석하면서, 질적 연구방법론 서적 및 학위 논문을 심도 있게 학습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를 통하여 학회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으며, 같은 분야의 연구자와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고찰하는 노력을 해왔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의 삶의 이해를 중립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하고 폭 넓은 이해가 가능한 연구진들로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학회 및 기관을 통해서 수행하여 그들을 많은 접촉을 통하여 본질을 편견 없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연구진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연구자가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0.1세, 한국 평균 정착 기간 8년 3개월, 임상경력은 평균 2년 3개월 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4명, 미혼이 3명이었다.

북한이탈간호사의 경험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Colaizzi[12]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진술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자가 구성한 의미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 총 5개의 주제 모음을 확인하였다.

3.1 제 1주제 모음 : 한국의 간호사가 되었다는 자부심

제 1주제 모음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막막하고 생소했던 간호대학생활을 마치고 당당히 한국간호사로 일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자부심을 포함하고 있었다.

3.1.1 간호대학을 졸업한 자부심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에 도전을 할 수 있어도 기초부터 학습함에 따른 방대한 분량을 감당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안에서도 자신들이 한국의 간호대학을 다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니 꿈을 실현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북한에서 온 간호 대학생들은 졸업하는 게 꿈이고, 공부도 더 해보고 싶은 것도 꿈이고.. 공부를 하면서 다 힘들었어요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긴 했어도 배웠던 게 김일성 일가에 대한 교육이 많았고기본 지식이 별로 없었죠 쌀이 안 나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선생님

이고 학생이고 학교에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환경이 다르니 제가 진짜 학생 같으니 좋았어요 그 과정을 따라가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도 안하고 돈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살았어요생리학 같은 교과과는 학생들은 상식으로 많이 배우고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몰라서 어려웠어요 성적은 잘 안 나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병원 실습도 하고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받으니까 꿈만 같았어요(참여자 2)

“한국의 의료수준이 높아서 좋았어요 학교에서도 시뮬레이션 교육도 좋았고 놀랐어요병원 실습을 가는데 병원도 친차만별이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배울 수 있구나.. 북한에서는 호박에 주사를 놓는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간호교육을 제가 받으니까 좋을 곳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참여자 7)

3.1.2 북한에서 소망하였던 꿈을 실현

자유와 자기실현을 갈망하며 한국으로 입국하여 북한에서 할 수 없었던 학업을 시작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였다. 비록 북한과 한국간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다르지만 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원하던 학업의 꿈을 실현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정말 간호사를 하고 싶었어요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요 그게 한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간호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참여자 1)

“한국에서의 간호사보다 북한의 간호사가 훨씬 더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북한의 간호사는 전문적으로 많이 배우지는 않지만 사회적 지위는 한국보다는 높아요 의사나 환자는 간호사를 높게 대우해줘요(참여자 7)

3.1.3 역경 속에서 한국간호사로서의 인정받음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편견과 한국 교육을 단계적으로 받지 않아 무지한 상황에서 간호학을 어렵게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합격 후 한국간호사로 취업하기까지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무엇보다도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와 달리 한국간호사로 일하면서 조직구성원들의 인정은 성공적인 정착과 더불어 성취감과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

“너는 한국에서 공부한 것도 대단한데 한국 사회생활

을 한다는 것에 더 대단하다고 수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해요 참 뿌듯했어요”(참여자 3)

“학교 때 친하지 않은 동기가 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언니는 참 대단해 학교 다닐 적에도 성실하게 공부하더니 간호사가 되어서도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고.’ 그 때 참 기쁘기도 하고 내가 자랑스러웠어요”(참여자 6)

3.2 제 2주제 모음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한국간호사 되어가기

대상자들은 한국간호사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과정과 사회생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아직까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신들에게도 동일시되는 경우를 접하게 되며, 북한이탈주민이라서 다른 동료들보다 기대치가 낮게 인식됨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인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며 언어로부터 오는 이질감을 극복하고자 한다. 제2주제 모음에서는 대상자들은 다양한 내적갈등이 지속되면서 한국간호사로 동화되어가며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2.1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느끼는 간호사 취업의 장벽

대상자들은 취업이 잘되는 이유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였지만, 막상 취업의 문턱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장벽으로 움츠러들게 되었다.

“성적이 안 좋지요 영어를 배우지 않아서 토익점수도 없지요 출신도 북한인데 한국에서는 자기소개서에 성장 과정을 적도록 하지요”(참여자 5)

“교수님께서 취업지도를 해주시면서 ‘너희는 문화가 다르니 적응하기 더 힘들다 라고 단정 지어 버려서 그 다음 부터는 세세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참여자 4)

“병원에서 입사하는데 신원조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친구가 제가 탈북자라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간첩도 아닌데.. 누구나 하는 절차지만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참여자 3)

“간호학과는 취업이 잘 되잖아요 저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다 하는 거예요 저는 북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저기 써봤지만(중략) 처음에는 다 떨어졌어요”(참여자 7)

3.2.2 차별과 편견 속에서 어려움

대상자들 중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공개하였을 경우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거나 북한사람들과 동일시 여겨 불필요한 편견을 갖게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대상자들은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동료들보다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하여서 동료들에게 이질감을 부추킨다고 느끼고 있었다.

“대학교 생활 보다는 오히려 취업하는 과정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처럼 3.5 이상 만들고, 휴학까지 하면서 어학연수도 다녀와서 토익점수 5750점도 넘기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마냥 대학병원에 취업할 줄 알았어요 원서를 냈는데 서류에서조차도 안 되더라고요 자기소개서에서 제 성장과정을 솔직하게 적다보니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였나 봐요”(참여자 6)

“언론에서 말하는 것에 공감되기도 하지만 개인마다 삶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북한의 일상으로 비춰질까봐 겁나요 다 그런 시각으로 볼까봐 걱정이예요 언론에서 북한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북한이 다 그렇게 비춰질까봐 걱정스러워요 북한의 한 사람이 기생충 나왔다고 하면 북한 사람 다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하니 창피해요 북한 사람들은 다 이가 있고 다 굶고 있다고 비춰지니 속상하기도 하고요(참여자 5)

“병원에서 윗 언차 선생님 때문에 어려웠어요 선생님 태워서 어려웠는데 어느 날 저를 안 괴롭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 없을 때 수선생님께서 북한에서 왔으니 저를 잘 해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특혜 받는다는 게 어려웠고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수선생님이 말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아는 척 하기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지내는 것도 어려웠어요”(참여자 7)

3.2.3 경쟁적인 사회문화에 적응

대상자들은 한국 사회문화에 젖어들면서 집단주의적이고 획일주의적인 북한의 가치와 다른 한국의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를 체감하고 한국의 삶의 방식에 서서히 적응해가려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국친구들과 오로지 똑같이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4년간 열심히 공부를 한 것도 모자라 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많은 곳에 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는 것이 참.”(참여자 4)

“한국에 와서 간호사는 서비스를 해야 하고 환자를 만족 시켜야 한다는 것이 달랐어요 한국은 자본주의여서 자기 돈으로 자기가 치료를 받는다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는 환자를 헌신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려고 했는데, 다른 병동보다 다른 병원보다 더 잘해야만 하다니.. 일이 적응되면 대학원도 가려고요 병원에서 오래 일하려면 계속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야 해요(참여자 2)

“북한에서 오면 환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니 힘들어요 북한 사람은 정신력은 강하지만 경쟁에는 약한 것 같아요 가끔 자다가 눈을 뜨면 ‘여기가 북한이던가? 한국이던가?’ 하면서 아직도 나는 북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요 여기는 한국이니깐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결심해요 대한민국은 경쟁사회이니깐. 북한은 느리게 천천히 여유 있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경쟁사회이니깐..”(참여자 5)

3.2.4 북한 말투를 고쳐나가기

대상자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북에서 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북한 말투를 고쳐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가장 힘든 것은 북한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서 강원도라고 얘기하기도 강원도 어디라고 물어보고. 속초라고 하면 속초 어디냐고 하고요..”(참여자 1)

“사람들이랑 만나서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머리에서 몇 번이고 생각하고 톤도 조절하고..”(참여자 2)

3.2.5 선입견으로 인한 상처

대상자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자신이 북한사람들의 표상으로 비춰지거나, 특히 북한으로부터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사건 발단인 북한지도자와 자신이 동일시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불편한 마음을 비추었다. 한국에서 헌법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주변의 시선은 한국사회와 완전히 동화되지 않은 상태로 다양한 경험이 상처로 남고 있었다.

“간호사로 일할 때 저에게 호기심으로 접근을 해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 먹어봤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주변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다들 북한에서 온

것을 알게 되어서 당황스러워요. 정말 북한의 사회나 행태가 궁금한 건지. 북한에 와서 이런 것도 못해 봐서 무시하는 질문인지. 약간 나쁘게 들려요. 기분이 좀 상할 경우도 있어요. 일이나 공부에서 이해력이 떨어지고 더디게 적응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어요(참여자 1)

“김정은이 만행을 저지를 때 천안함 사건이라던가. 그런 일은 한국에 있는 지도 똑같은 상황인데 저로 인해 말 생각하고 제가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해요. 그 체제를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곤란해요. 제가 거기서 태어난 게 잘못도 아니고, 분단된 것이 제 책임도 아니고...”(참여자 7)

3.3 제 3주제 모음 :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제 3주제 모음에서는 한국의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노력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었다.

3.3.1 상호 간의 차이를 인정

대상자들은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한국사회 적응 과정의 하나로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있었다.

“친구들 중에서는 ‘너는 왜 미안한데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냐?’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잘못했다고 말하면 죄를 인정하는 거라서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한국 친구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함께 하려고 해요”(참여자 2)

“살아온 곳과 환경이 다른데 어쩔 수 없지요. 서로 만나면서 이해하고 맞추어 가야지요(참여자 6)

3.3.2 한국 사람의 편에서 생각해보기

한국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북한 정권의 표상으로 지목되어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있지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 보는 등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학교 다닐 때 연평도 사건이 생겼어요. 그 일로 인해 제가 비난을 받는 게 속상했어요. 하지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니 이해도 되었어요(참여자 5)

3.4 제 4주제 모음 : 하나의 민족으로 나아가고픈 희망

이 주제 모음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남북이 차이가 있

음을 인지하면서도, 과거와 미래를 조망할 때에는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이 존재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희망을 포함하고 있었다.

3.4.1 민족공통체로 인식

대상자들은 한국과 북한 간에 차이와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역사적으로는 한민족이라는 인식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다문화란 한 국가 속에서 다른 인종·민족 등의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한국에서 다문화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 강한 부정을 하고 있었다.

“북에서 전화가 와요. 엄마도 한국으로 올 수 있어요. 돈만 붙이면 브로커 비용만 붙이면요. 위험하긴 하지만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민족이니 통일을 해야 하는 데...”(참여자 7)

“다문화라는 것은 아예 동남아나 다른 나라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는 한민족인데 다문화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참여자 2)

3.4.2 동질함을 통한 공감대 형성의 염원

대상자들은 이질감보다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화제를 통해 남과 북이 한민족 안에 속해 있음을 공감하길 바라고 있었다.

“가족들의 신변보호도 안 해주고 언론에서 북한에 관한 프로그램은 북한이 한국과 너무 다르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같은 부분도 많은데 다른 부분만을 보여주고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극적이고 이질감만 높아지도록 하고요. 이것을 보면서 북한을 더 미개하고 더 싫어할 것 같아요(참여자 1)

“한국 안에서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른 점이 많잖아요. 한국과 북한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참여자 3)

“간장공장공장장. 콩깍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등 너무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한국에서 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음식도 너무 똑같은 것도 많고요. 같은 것이 많은데 다른 것만 계속 보여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참여자 4)

3.5 제5주제 모음 : 새로운 꿈을 위한 열정과 도전

이 주제 모음은 지나는 시간과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토로면서도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간호사로서 전문성을

발전시켜 직업적 성공을 다짐하기도 하고, 통일되었을 때 자신이 성취한 사회적인 성취를 북한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대상자들은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보면서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며 계속적으로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었다.

3.5.1 통일을 위한 준비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얻게 된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통일 후 환원하고자 하였다. 대상자들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 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북한 간호학을 발전시키고 싶어요. 저는 북한과 통일하게 되면 북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참여자 2)

“미국에 가려고 NCLEX RN을 따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와서 허가가 안 나서 1년 3개월 허가가 난 거예요. 한국 친구들 쉬운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미국에 가서 대학원을 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북한 아이들에게 간호학을 가르칠 거예요(참여자 5)

“계속 공부를 하려고요. 간호학 박사까지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교수가 될 거예요(참여자 7)

3.5.2 일에 대한 보람과 그에 따른 도전

대상자들은 간호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을 통해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간호사라는 특수성을 인식하고 보다 전문적인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었다.

“간호사를 하게 된 계기는 취업 잘 되고 돈을 잘 벌 수 있으니 시작했어요.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이 직업이 좋아요. 대학원도 가서 수간호사까지 해볼 거예요”(참여자 5)

“저희 직업의 기본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노력했어요. 지금 일하는 게 좋아요. 환자들도 저를 좋아하고요. 친절하고 아는 것이 많은 똑똑한 간호사가 될 거예요(참여자 7)

4. 논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 후 한국간호사로의 적응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는 이질감과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성공적인 한국간호사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이해하고, 추후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게 위해 시도되었다.

첫 번째 주제 모음인 ‘한국의 간호사가 되었다는 자부심’에서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자부심’, ‘북한에서 소망하였던 꿈을 실현’, ‘역경 속에서 한국간호사로서의 인정’의 세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경험을 보고한 Park과 Lee[3]의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은 어려서부터 간호사가 되길 꿈꿔왔으며, 북한에서는 지속적인 학업을 할 수 없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업에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간호대학에 합격을 확인 후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뻐했으나 언어, 학습, 평가, 정보부족, 교우관계, 학교문화 등의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됨을 어려워하였다. 하지만 북한에서 할 수 없었던 학업을 할 수 있음과 전문직업인이 될 수 있는 간호학을 공부하여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며 간호사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본 연구와 동일하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의 교육적 경험을 연구한 Cha 등[9]의 연구에서도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꿈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이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쏟은 열정과 간호사가 되는 꿈을 이루려는 노력은 본 연구의 북한이탈 간호사들이 겪었던 동일한 과정이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최종 목표였던 한국간호사 된 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주제 모음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한국간호사 되어가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간호사 취업의 장벽 느끼기’, ‘차별과 편견 속에서 어려움’, ‘경쟁적인 사회문화에 적응’, ‘북한 말투를 고쳐나가기’, ‘선입견으로 인한 상처’의 다섯 가지 주제가 포함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어려움이 차별과 편견이며[14], 차별경험은 새로운 사회에 유입된 소수집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되며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심각한 저해요인이 된다[15]. 북한이탈 대학생의 대학생활은 단계적인 교육의 부재, 언어의 차이로 학업의 어려움과 부적응을 가지고 있으며, 편견과 차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된다[5]. 차별 및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23.1%로 가장 주된 이

Table 1. Themes and Sub-themes

(N=7)

Themes	Sub-themes
Pride of becoming nurse in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de of graduating nursing college • Realizing dream they had in North Korea • Recognized as Korean nurse in hardship
Becoming a Korean nurse as a North Korean Defec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eriencing employment-barrier as a North Korean defector nurse • Hardship due to discrimination and bias • Adjustment to competitive culture • Changing North Korean accent • Getting hurt from prejudice
Understanding and accepting differ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cept mutual difference • Understand Korean people
A hope to be recognized as the same peo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gnize as one ethnic group • Hoping to build bond of sympathy through sense of kinship
Passion and challenge for new dr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e for unification • Feel worthwhile about work and challenge for working

유는 문화적 소통방식(말투, 생활방식, 태도 등)이 다르다는 이유가 74.3%나 되었다. 그 외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41.1%, 한국 사람에 비교하여 능력이 부족해서 24.8%, 북한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교육방식에서 오는 스트레스, 정보자원의 부재로 인한 시행착오 등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차별과 편견 속에서 경쟁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기가 어려웠다. 북이탈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의 비율은 56.1%로 높게 보고되며[5],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취업 지원 시 자기소개서에 성장과정이 보고되는 것에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 번째 주제 모음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상호 간의 차이를 인정’, ‘한국 사람의 입장을 이해’의 두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의 교육적응 경험을 연구한 Cha 등[9]의 연구에서도 한국 학생들과의 학습능력과 환경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먼저 다가가서 소통하고 한국 교우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이탈 주민이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해와 노력만 기대하기보다는 한국의 문화를 충분히 체험하고 받아들일 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간과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고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동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5].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이 당면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의 이해와 적응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구성원의 생각과 의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16]. Ro [5]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 학생은 한국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하여 한국 친구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부분이 훨씬 효과적이고 많기 때문에 한국 친구들과의 만남을 더 중요시 여기고 집중하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이들 중의 일부는 한국의 우수한 학생들과의 만남을 원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한국 구성원도 함께 북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 갈 때 민족적 동질감을 회복하고 통일에 대한 동기를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10]. 따라서 북한이탈 주민이 더 빠르고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구성원들과 교류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주제 모음인 ‘하나의 민족으로 나아가고픈 희망’에서는 ‘민족공동체로 인식’, ‘동질함을 통한 공감대 형성의 염원’의 두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문헌분석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사회통합의 의미를 보고한 Lee [18]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통합으로 안정감, 행복감, 소속감의 3가지 개념으로 분류되었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런 삶을 영위하면서 한국사회에 소속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Lee[18]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는 한국과 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에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지 않는 인식이라고 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그들이 이 사회에서 적응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긍정적 지지태도가 확립되어야 함이 필요하다는 것

을 뜻한다[18]. 한국의 간호대학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을 연구한 Lee[18]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한민족이라는 동질감보다는 이주자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북한이탈주민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구성원 또한 문화적 수용성을 키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18]. 따라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간호학과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로 배출되는 졸업생도 점점 증가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나 그 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남한과 북한의 사회통합의 관점과 북한 의료의 발전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북한이탈 간호사의 임상적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 번째 주제 모음인 '새로운 꿈을 위한 열정과 도전'에는 '통일을 위한 준비', '일에 대한 보람과 그에 따른 도전'의 두 가지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Park과 Lee[3]의 연구의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은 남북통일이 되면 자신으로 인하여 남과 북이 연결고리가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북한으로 가서 의료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자 하는 이타적인 삶을 다짐하고 있어 본 연구와 동일하였다.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의 교육적응경험을 연구한 Cha 등[9]의 연구에서는 북이탈 간호대학들이 힘든 과정에서 버틸 수 있는 힘으로 한국 사회의 구성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긍심과 배움의 기쁨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간호사의 전문성을 통일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긍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간호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그밖에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Park과 Lee[3]연구의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은 자신이 대학을 입학할 때 특별전형으로 비교적 쉽게 들어오고 장학혜택으로 학비를 안내고 다니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냈으며, 학교를 휴학하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좋은 점수를 받거나 좋은 곳에 취업하려는 기대치를 낮추어 가는 과정이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의 학업경험을 연구한 Cha 등[9]의 연구에서도 목숨을 건 극한 상황에서 탈북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막연하게 한국으로 왔는데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마음이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간호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사회생활에 흡수되어 점차 지원의 빈도도 줄어들고 한국구성원과 동등하게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을 위한 지원은 초창기 5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정책이 종료된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회부적응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며, 실제로 5년의 보호기간이 경과된 후 45.6%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는 직업이 있을수록 사회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의 성공적인 적응은 통일 후 보다 빠른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착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북이탈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이탈 간호사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이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한국간호사로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의미 있는 주제는 '한국의 간호사가 되었다는 자부심',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한국간호사 되어가기',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하나의 민족으로 나아가고픈 희망', 새로운 꿈을 위한 열정과 도전'으로 5가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간호사로 성공적으로 취업하여 적응하고 있는 북한이탈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새로운 꿈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와 달리 한국간호사 면허는 취득하였지만 취업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임상현장에서 부적응으로 인하여 한국간호사로 일하지 않는 북한이탈 간호사의 사례를 연구하기를 제언한다. 또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들은 북한이탈주

민을 주된 조사대상자로 다루었으며, 한국의 구성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견해가 동등하게 고려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한국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미를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unification. (2018), August 10.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Retrieved from :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st/>
- [2] Ministry of unification. (2018). *Stat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Retrieved from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 [3] E. Y. Park & E. J. Lee. (2013). Phenomenology on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that have defected from North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3), 351-361. DOI:10.5977/jkasne. 2013.19.3.351
- [4] Ministry of unification. (2018c, August 10). *Support system of North Korean defectors*. Retrieved from :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System/>
- [5] H. K. Kim. (2010).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6] E. M. Park, J. S. Park & Jung, T. Y. (2009). Effects of stresses and potential moderators on school adjustments of undergraduates from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7(3), 285-293.
- [7] T. D. Kim & S. S. Choi. (2008). The Study of the Academic Maladjustment of Sateomin (North Korean Defectors) College Students. The Study of the Academic Maladjustment of Sateomin (North Korean Defectors) College Students. *Korean Association of Youth Welfare*, 10(3), 255-276.
- [8] Korea Hana Foundation. (2018a). *2017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integration survey*. Seoul: Korea Hana Foundation.
- [9] C. Y. Cha, K. E. Lee, Y. R. Kweon & Jeong, H. J. (2016). The Experience of Setumin College Students' Adaptation to the Nursing Education in South Korea. *The Academy of Qualitative Research*, 17(1), 22-38.
- [10] H. K. Lee (2006). North Korean Students in the South Korean School System, Educational Criticism, 21.
- [11] H. S. Kim, G. O. Noh, D. Y. Lee, J. K. Park, I. S. Seo, & G. I. Jung, et al. (2018). *Unification & health in nursing*. Seoul: Hyunmoon.
- [10] P. Colaizzi.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1] Y. S. Lincoln &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12] Korea Hana Foundation. (2018-b). *2017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d survey*. Seoul: Korea Hana Foundation.
- [13] M. Safi. (2010). Immigrants' life satisfaction in Europe : Between assimilation and discrimin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2), 159-176.
- [14] I. S. Lee. (2017).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Korean Academy Social Home Care Nurse*, 24(1), 44-51.
- [15] E. H. Ro. (2016). *A narrative inquiry into successful employment experience of North Korean migrant young people who graduated from university in South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Korea.
- [17] M. Y. Lee. (2015).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on Integration Support for North Korean Migrants in South Korea. *The Korean Child and Family Welfare Association*, 49, 39-69.
- [18]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8b).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adaptation in work places and policy projects*. Seoul: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19] I. H. Lee & H. J. Choi. (2017). Factors Influencing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1,(2), 341-351. DOI:10.5932/JKPHN. 2017.31.2.341

김희숙(Kim Hee Sook)

[정회원]



- 200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1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10월 ~ 현재 : 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모성, 간호중재, 통일과 간호
- E-Mail : kimhs02041@hotmail.com

이 도 영(Lee Do Young)

[중신회원]



- 2010년 8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 스트레스, 간호중재, 통일과 간호
- E-Mail : sunshinenurse@hanmail.net

서 임 선(Seo Im Sun)

[정회원]



- 2002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
과 (간호학석사)
- 2011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
과 (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가톨릭관동
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통일과 간호, 환자안전과 질 향상
- E-Mail : sunnylc@naver.com